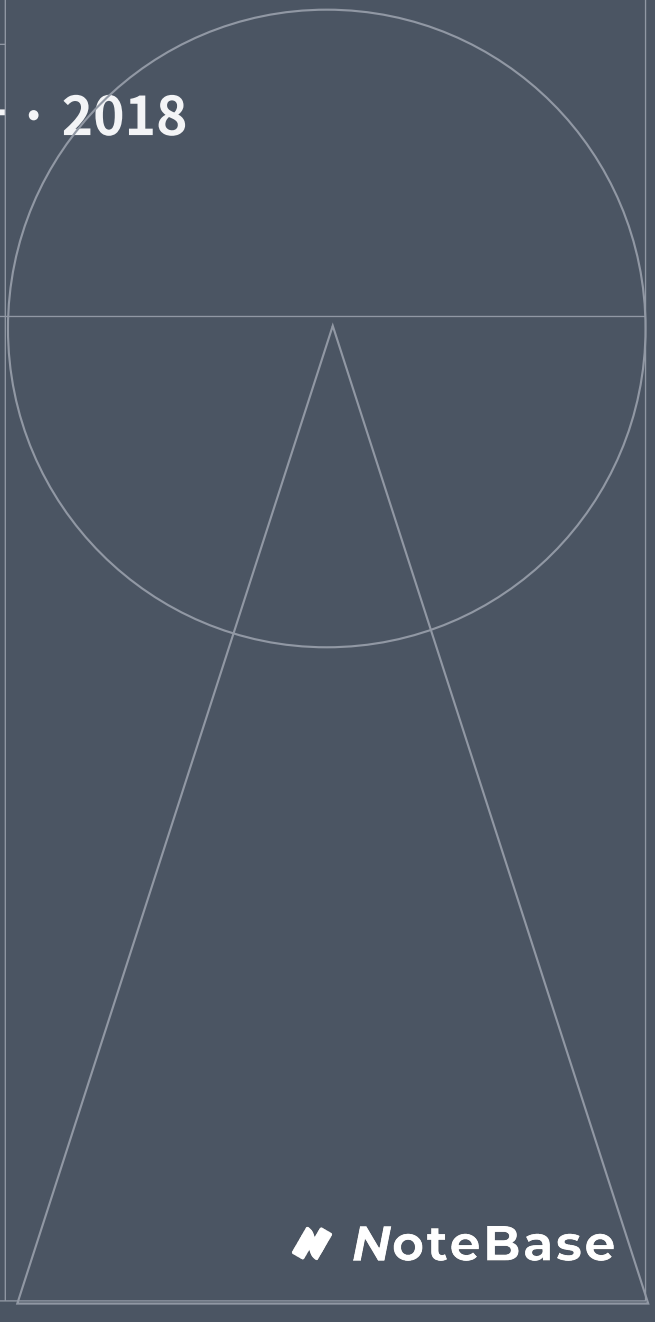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한국사 · 2018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한국사 · 2018

공무원/국가직/7급 · 한국사 · 2018

문 1. ㉠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나라가 쇠약해지자 연나라가 스스로 왕을 칭하고 동쪽으로 침략하려 하였다. ㉠의 후(侯) 역시 스스로 왕을 칭하고 군사를 일으켜 연나라를 공격하려 하였는데, 대부인 예(禮)가 간하여 중지하였다.

① 전연의 공격을 받아 심한 타격을 받았다.

② 매년 10월 무천이라는 제천행사를 열었다.

③ 박·석·김씨가 왕위를 교대로 계승하였다.

④ 8조의 법을 제정하였는데 세 조항만 전해진다.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연나라와 대립한 기록 속 단서를 바탕으로 고조선을 식별하고, 고조선의 대표 제도를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제시문의 '연나라가 왕을 칭함', '조선후', '대부 예의 간언'은 모두 고조선 관련 기록이다.
고조선은 8조법을 두었고, 오늘날에는 그중 3개 조항만 전한다.
동예는 10월에 무천을 열었고, 신라는 박·석·김 세 성씨가 초기에 교대로 왕위를 이었다.
전연의 침입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은 고구려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1번 X: 전연의 공격으로 심한 타격을 받은 것은 고조선이 아니라 고구려이다. 틀린 표현은 '전연의 공격'이며, 올바르게는 '고구려는 전연의 침입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이다.
2번 X: 매년 10월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를 연 것은 동예이다. 틀린 표현은 고조선에 무천을 연결한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동예는 10월에 무천을 열었다'이다.
3번 X: 박·석·김씨가 왕위를 교대로 계승한 것은 신라 초기의 특징이다. 틀린 표현은 이 내용을 고조선의 특징처럼 제시한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신라는 초기에 박·석·김 세 성씨가 교대로 왕위를 이었다'이다.
4번 O: 고조선은 8조의 법을 제정하였다고 전하며, 현재는 3개 조항만 전해진다. 고조선의 사회 질서와 사유 재산 보호 경향을 보여 주는 대표 내용이다.

오답 포인트

선지들은 고조선·고구려·동예·신라의 대표 특징을 한 문제에 섞어 놓았다. 제시문에서 먼저 고조선을 확정하지 않으면 무천, 박·석·김, 전연 침입처럼 익숙한 키워드에 끌려 다른 나라의 특징을 고르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료에서 나라를 먼저 식별한 뒤, 선지는 '대표 키워드가 어느 나라 것인지'로 하나씩 대조하면 된다.
'조선후·대부 예'가 보이면 고조선을 떠올리고, 이후 8조법과 연결되는지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고조선은 조선후와 8조법, 동예는 무천, 신라는 박·석·김, 고구려는 전연 침입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2. 조선초기 국왕의 업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태조는 한양으로 천도하고 한성부로 이름을 바꾸었다.

② 태종은 창덕궁과 창경궁을 새로 건설하였다.

③ 세종은 사가독서제를 실시하여 학문 활동을 장려하였다.

④ 세조는 간경도감을 설치하여 불경을 번역하고 간행하였다.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조선 전기 국왕과 대표 업적을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태조: 한양 천도·한성부 개칭 — 조선 건국 직후 새 도읍 체제를 정비한 국왕이다.
태종: 창덕궁 건설 — 왕권 강화를 추진하며 경복궁의 이궁인 창덕궁을 세운 국왕이다.
세종: 사가독서제 실시 — 유능한 문신에게 독서와 연구의 시간을 주어 학문 활동을 장려한 국왕이다.
세조: 간경도감 설치 — 불경을 국역·간행하게 하여 불교 경전 보급을 추진한 국왕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태조는 한양으로 천도하고 수도 행정구역 이름을 한성부로 바꾸었다. 조선 건국 직후 도읍 정비 내용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② X: 틀린 부분은 "창경궁"이다. 태종은 창덕궁을 새로 지었지만 창경궁은 성종 때 지은 궁궐이므로, 올바르게는 "태종은 창덕궁을 새로 건설하였다" 또는 "성종은 창경궁을 건설하였다"이다.
③ O: 세종은 사가독서제를 실시하여 젊은 관료와 학자들이 독서와 연구에 전념하도록 하였다. 학문 진흥 정책으로 연결되므로 옳다.
④ O: 세조는 간경도감을 두어 불경을 한글 등으로 번역·간행하게 하였다. 불교 경전 정리와 보급을 위한 조치이므로 옳다.

오답 포인트

궁궐 이름이 비슷해 창덕궁과 창경궁을 같은 시기 업적으로 묶어 버리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태종의 창덕궁 건설은 맞지만 창경궁까지 함께 연결한 점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선 전기 문화사·정치사 문항은 국왕 이름을 보면 먼저 대표 업적 한두 개를 바로 연결해 판단하는 방식이 유효하다. 특히 궁궐 건설, 학문 장려, 불교 정책처럼 성격이 다른 업적을 국왕별로 분리하면 오답을 빠르게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태조-한양, 태종-창덕궁, 세종-사가독서제, 세조-간경도감으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3. 군국기무처가 폐지되고 시행된 제2차 갑오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하였다.

② 종래의 6조를 8아문으로 개편하였다.

③ 경무청을 신설하여 경찰제도를 도입하였다.

④ 궁내부를 신설하여 왕실과 정부 사무를 분리하였다.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군국기무처 폐지 이후의 제2차 갑오개혁 조치와 군국기무처 중심의 제1차 갑오개혁 조치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제1차 갑오개혁은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8아문 설치, 경무청 신설, 궁내부 설치처럼 국가 기구를 처음 개편한 단계이다.
제2차 갑오개혁은 군국기무처 폐지 뒤 홍범 14조 반포, 7부 체제, 23부제, 교육입국조서처럼 근대 국가 체제를 더 정비한 단계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교육입국조서는 1895년에 반포된 제2차 갑오개혁의 대표 정책이다. 근대 교육을 통해 국가를 세우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조치이므로 옳다.
② X: 틀린 부분은 "6조를 8아문"이다. 실제로는 제1차 갑오개혁에서 종래의 6조를 8아문으로 개편하였다. 제2차 갑오개혁에서는 8아문을 7부로 정비하였다.
③ X: 틀린 부분은 "경무청을 신설"이다. 실제로는 제1차 갑오개혁에서 내무아문 산하에 경무청을 두어 근대적 경찰 제도의 틀을 마련하였다.
④ X: 틀린 부분은 "궁내부를 신설"이다. 실제로는 궁내부 설치가 제1차 갑오개혁의 조치이다. 제2차 갑오개혁에서는 내각과 분리된 궁내부 관제를 간소화하며 체제를 정비하였다.

오답 포인트

갑오개혁 전체를 한 덩어리로 외우면 1차의 8아문·경무청·궁내부와 2차의 교육입국조서가 쉽게 뒤섞인다.
선지의 핵심 명사가 어느 단계의 제도인지 시기까지 함께 묶어 두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갑오개혁 선지는 먼저 군국기무처의 존속 여부를 기준으로 나눈다. 군국기무처가 중심이면 제1차, 군국기무처 폐지 뒤 홍범 14조·교육입국조서·7부·23부제가 나오면 제2차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제1차는 8아문·경무청·궁내부, 제2차는 홍범 14조·7부·23부·교육입국조서이다.

NoteBase

문 4.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가) 남북한은 자주·평화·민족적 대단결의 통일 원칙을 명시한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나)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같은 해에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① 4·19 혁명 발발
② 금융실명제 실시
③ 5·18 민주화운동 발발
④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시작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7·4 남북 공동성명과 1991년 남북 유엔 동시 가입·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사이의 연표를 정확히 배치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7·4 남북 공동성명(1972) — 자주·평화·민족 대단결의 통일 원칙을 밝힌다.
2. 5·18 민주화운동 발발(1980) — 광주에서 민주화운동이 전개된다.
3.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1991) — 남북이 함께 유엔 회원국이 된다.
4.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1991) — 같은 해 남북 관계의 기본 원칙을 합의한다.

왜 이 순서: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 사건이므로 1972년의 7·4 남북 공동성명 뒤에 오고 1991년의 남북 유엔 동시 가입과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앞에 온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4·19 혁명은 1960년에 일어났다. 1972년 7·4 남북 공동성명보다 앞선 사건이므로 (가)와 (나) 사이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틀린 표현은 '사이에 있었다'이며, 올바르게는 '7·4 남북 공동성명 이전의 사건이다'이다.
② X: 금융실명제는 1993년에 실시되었다. 1991년 남북 유엔 동시 가입과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보다 뒤의 사건이므로 (가)와 (나) 사이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사이에 있었다'이며, 올바르게는 '남북 기본 합의서 채택 이후의 사건이다'이다.
③ O: 5·18 민주화운동은 1980년에 발발하였다. 1972년과 1991년 사이에 들어가는 대표적 사건이므로 정답이 된다.
④ X: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67년에 시작되었다. 7·4 남북 공동성명보다 앞선 시기의 사건이므로 (가)와 (나) 사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사이에 있었다'이며, 올바르게는 '7·4 남북 공동성명 이전에 시작되었다'이다.

오답 포인트

남북 관계사 기준 사건 두 개를 제시하고 그 사이의 현대사 사건을 고르게 한 문제이다. ①과 ④는 둘 다 1972년 이전 사건이고 ②는 1991년 이후 사건인데, 사건의 성격만 보고 민주화·경제·통일사를 섞어 기억하면 연도가 흔들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표 문제는 기준 사건의 연도를 먼저 확정한 뒤 각 선지를 그 앞, 그 사이, 그 뒤로 나누어 배치하면 된다. 이 문항에서는 1972년과 1991년 사이에 들어가는지만 판단하면 1980년의 5·18 민주화운동이 바로 걸러진다.

암기 포인트

7·4 남북 공동성명(1972) → 5·18 민주화운동(1980) → 남북 유엔 동시 가입·남북 기본 합의서(1991) 순서로 묶어 기억한다.

NoteBase

문 5. 194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의열 활동을 위해 한인 애국단을 결성하였다.
ㄴ.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건국 강령을 발표하였다.
ㄷ. 대일 선전 포고를 하고 연합군과 합동 작전을 전개하였다.
ㄹ. 정부의 형태가 대통령제에서 국무령 중심의 의원내각제로 바뀌었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1940년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외 항전 활동과 건국 구상, 그리고 그 이전 시기의 조직 변천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한인 애국단은 1931년 김구가 상하이에서 조직한 의열 단체로, 1930년대 항일 의거와 연결된다.
건국강령은 1941년 임시정부가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발표한 광복 이후 국가 건설 청사진이다.
임시정부는 태평양 전쟁 뒤 대일 선전 포고를 하고 한국광복군을 중심으로 연합군과 공동 작전을 추진하였다.
임시정부의 정부 형태는 1919년 대통령제에서 1920년대 국무령 중심 체제로 바뀌었고, 1940년에는 주석제로 개편되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이 틀렸다. 틀린 부분은 한인 애국단 결성을 1940년대 임시정부의 사실처럼 넣은 점이다. 한인 애국단은 1931년 김구가 조직한 단체이므로 1940년대 임시정부의 활동으로 묶기 어렵다. ㄴ은 1941년 건국강령 발표 내용이므로 옳다. 따라서 ①의 조합은 맞지 않는다.

② X
ㄱ이 틀리고 ㄹ도 틀렸다. ㄱ은 1931년 한인 애국단 결성으로 고쳐야 한다. ㄹ의 틀린 부분은 대통령제에서 국무령 중심 의원내각제로 바뀐 시기를 1940년대 임시정부 설명에 넣은 점이다. 올바르게는 그 변화는 1920년대의 일이고, 1940년에는 주석제로 개편되었다.

③ O
ㄴ과 ㄷ이 모두 옳다. ㄴ은 임시정부가 1941년 삼균주의에 기초한 건국강령을 발표한 사실이다. ㄷ도 임시정부가 대일 선전 포고를 하고 한국광복군이 연합군과 합동 작전을 전개한 사실이므로 옳다.

④ X
ㄷ은 옳지만 ㄹ이 틀렸다. ㄹ의 틀린 표현은 1940년대 임시정부의 정부 형태 변화로 대통령제에서 국무령 중심 의원내각제로 바뀌었다고 한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1940년대 임시정부는 주석제를 채택하였고, 대통령제에서 국무령 중심 체제로의 전환은 그보다 앞선 시기였다.

오답 포인트

한인 애국단과 임시정부의 관계만 기억하고 시기를 놓치면 ㄱ을 맞는 내용으로 오해하기 쉽다. 또 임시정부의 조직 개편을 한 덩어리로 외우면 대통령제→국무령→주석제의 순서를 섞어서 ㄹ을 고르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임시정부 문제는 먼저 시기를 자른다. 1930년대는 한인 애국단, 1940년대는 건국강령·대일 선전 포고·한국광복군의 연합군 협력으로 판단하면 선지의 O/X가 빠르게 갈린다. 정부 형태는 대통령제, 국무령 중심 체제, 주석제의 순서로 따로 판별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한인 애국단은 1931년, 건국강령과 대일 선전 포고는 1940년대, 1940년 임시정부는 주석제이다.

NoteBase

문 6. 1880년대 개화정책과 관련된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교정청은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였다.
ㄴ. 청에 파견된 영선사 김윤식 일행은 무기제조법을 배웠다.
ㄷ. 미국에 파견된 보빙사는 군대 시설을 시찰하고 대통령을 접견하였다.
ㄹ. 김홍집은 조사시찰단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조선책략』을 가지고 돌아왔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1880년대 개화 정책 추진 기구와 대외 사절단의 성격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통리기무아문은 1880년에 설치된 개화 정책 총괄 기구이다.
영선사는 청에 파견되어 군사 기술과 무기 제조법을 배운 사절단이다.
보빙사는 미국에 파견되어 근대 문물을 시찰하고 외교 관계를 맺은 사절단이다.
김홍집은 1880년 제2차 수신사로 일본에 다녀오며 황준헌의 『조선책략』을 가져왔다.

선지별 해설

1번 X: ㄱ이 틀리고 ㄴ만 옳다. 개화 정책을 총괄한 기구는 교정청이 아니라 통리기무아문이다. ㄴ의 영선사 김윤식 일행이 청에서 무기 제조법을 배운 것은 옳다.
2번 X: ㄱ과 ㄹ이 모두 틀리다. ㄱ의 '교정청'은 '통리기무아문'으로 고쳐야 옳다. ㄹ의 '조사시찰단'은 '제2차 수신사'로 고쳐야 옳다.
3번 O: ㄴ과 ㄷ은 모두 옳다. 영선사는 청에서 군사 기술과 무기 제조법을 배웠고, 보빙사는 미국에서 근대 시설을 시찰하고 대통령을 접견하였다.
4번 X: ㄷ은 옳지만 ㄹ이 틀리다. 김홍집은 조사시찰단으로 일본에 간 것이 아니라 제2차 수신사로 가서 『조선책략』을 가져왔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개화기 사절단의 명칭과 목적을 서로 바꾸어 기억하면 틀리기 쉽다. 조사시찰단과 수신사를 혼동하거나, 개화 정책 총괄 기구를 교정청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대표적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1880년대 개화 정책 문제는 먼저 '총괄 기구-통리기무아문', '청-영선사', '미국-보빙사', '『조선책략』-김홍집의 수신사'처럼 대상과 역할을 짝지어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통리기무아문은 총괄, 영선사는 청, 보빙사는 미국, 『조선책략』은 김홍집의 수신사이다.

NoteBase

문 7. 다음과 같이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로부터 나라의 역사가 중기에 이르면 인심이 반드시 편안만 탐해 나라가 점점 쇠퇴한다. 그때 현명한 임금이 떨치고 일어나 천명을 연속시켜야만 국운이 영원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200여 년을 지내 지금 중쇠(中衰)에 이미 이르렀으니, 바로 천명을 연속시킬 때이다.

① 경과 의를 근본으로 하는 실천적 성리학풍을 창도하였다.
② 왕이 지켜야 할 왕도정치 규범을 체계화한 『성학십도』를 지었다.
③ 삼강오륜의 윤리를 설명하고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적은 『동몽선습』을 지었다.
④ 우리 역사에서 기자의 행적을 주목하고 그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기자실기』를 지었다.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선 중기의 개혁론을 제시한 율곡 이이의 주장과 저술을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이이: 조선 사회가 중쇠에 이르렀다고 보고 현명한 군주를 중심으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본 인물이다.
조식: 경과 의를 앞세워 실천과 절의를 중시한 남명학파의 인물이다.
이황: 군주의 수양과 왕도정치의 원리를 정리한 『성학십도』를 지은 인물이다.
박세무: 아동 교육용 윤리서이자 역사 입문서인 『동몽선습』을 지은 인물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경과 의를 근본으로 하는 실천적 성리학풍'은 남명 조식과 연결된다. 올바르게는 조식이 경의 실천과 절의를 중시하는 학풍을 이끌었다고 보아야 한다.
2번: X. 『성학십도』는 퇴계 이황이 선조에게 올린 책으로, 군주가 따라야 할 성학과 왕도정치의 규범을 도식화한 저술이다. 올바르게는 이황이 『성학십도』를 지었다고 고쳐야 한다.
3번: X. 『동몽선습』은 박세무가 지은 책으로 삼강오륜과 중국사·국사를 함께 서술한 아동 교재이다. 올바르게는 박세무가 『동몽선습』을 지었다고 보아야 한다.
4번: O. 제시문의 인물은 조선이 중쇠에 이르렀다고 보고 개혁을 주장한 율곡 이이이며, 이이는 우리 역사에서 기자의 행적을 중시하여 『기자실기』를 저술하였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조선 성리학자를 묻는 문제에서 대표 저술과 학풍이 서로 바뀌어 제시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이와 이황, 조식, 박세무의 대표 저술을 사람 이름 없이 외우면 헷갈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시문의 핵심 주장으로 인물을 먼저 잡고, 이어서 각 선지의 대표 저술이 누구의 것인지 대조하면 된다. '중쇠를 극복할 개혁'은 이이, '경과 의'는 조식, '성학십도'는 이황, '동몽선습'은 박세무로 연결된다.

암기 포인트

이이=개혁론·『기자실기』, 이황=『성학십도』, 조식=경과 의, 박세무=『동몽선습』이다.

NoteBase

문 8. ㉠ ~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조가 아뢰기를, "㉠ 자의 왕대비께서 선왕의 상에 입어야 할 복제를 결정해야 하는데, ㉡ 어떤 사람은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하고 ㉢ 어떤 사람은 기년복(朞年服)을 입어야 한다고 하니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국왕은 여러 대신에게 의견을 물은 다음 ㉣ 기년복으로 결정하였다.
— 『조선왕조실록』 —

① ㉠ - 인조의 계비 조대비를 가리킨다.
② ㉡ - 윤휴는 왕통을 이었으면 적장자로 보아야 하므로 3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 - 송시열은 '체이부정(體而不正)'을 내세워 기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④ ㉣ - 『국조오례의』의 상복 규정에 따라 기년복으로 결정되었다.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해예송의 쟁점을 바탕으로 조대비, 윤휴, 송시열, 최종 결정 근거를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조대비(자의대비): 인조의 계비로, 효종이 죽자 어떤 상복을 입을지가 논쟁이 되었다.
윤휴: 효종은 왕통을 이은 임금이므로 적장자처럼 보아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송시열: 효종은 인조의 차자라는 점을 중시하고 체이부정 논리로 기년복을 주장하였다.
최종 결정: 현종은 『경국대전』을 근거로 기년복으로 확정하였다.

선지별 해설

1번 O: ㄱ은 자의대비 조씨를 가리킨다. 자의대비는 인조의 계비이므로 '인조의 계비 조대비'라는 설명은 맞다.
2번 O: 윤휴는 왕위를 계승한 효종을 적장자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고, 그 논리에서 삼년복을 주장하였다. 선지의 핵심 연결이 정확하다.
3번 O: 송시열은 『의례』 주소의 사종설 가운데 체이부정을 근거로 효종의 경우 기년복이 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송시열과 체이부정, 기년복의 연결은 옳다.
4번 X: 틀린 부분은 '『국조오례의』의 상복 규정에 따라'이다. 기해예송에서 기년복 확정의 표면적 근거는 『경국대전』의 규정이었다. 바르게 고치면 'ㄹ은 『경국대전』을 근거로 기년복으로 결정되었다'가 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예송은 송시열의 체이부정, 윤휴의 삼년복 주장만 외우고 끝내면 결정 근거 사료를 헷갈리기 쉽다. 특히 『국조오례의』와 『경국대전』을 뒤바꾸는 함정에 자주 걸린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예송 문제는 먼저 1차 기해예송인지 2차 갑인예송인지 구분하고, 다음으로 인물별 주장과 최종 채택 근거를 따로 분리해 확인하면 판단이 빨라진다. 기해예송은 효종의 상, 자의대비의 복제, 윤휴의 삼년복, 송시열의 기년복, 최종 기년복 확정의 흐름으로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기해예송은 효종 상복 논쟁이며, 윤휴는 삼년복, 송시열은 기년복, 최종 근거는 『경국대전』이다.

NoteBase

문 9. (가) 시기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로 옳은 것은?



①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 한성을 함락하였다.

② 금관가야가 가야 연맹의 주도권을 상실하였다.

③ 신라에서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④ 백제가 노리사치계를 보내 일본에 불상과 불경을 전하였다.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삼국의 역사서 편찬과 주요 사건의 선후 관계를 연표로 판단하는 문제이다.

올바른 순서

1. 고구려 태학 설립 - 소수림왕 때인 372년의 일이다.
2. 백제 『서기』 편찬 - 근초고왕 때인 375년의 일이다.
3. 신라 『국사』 편찬 - 진흥왕 때인 545년의 일이다.
4. 백제가 노리사치계를 일본에 보내 불상과 불경을 전함 - 성왕 때인 552년의 일이다.
5. 고구려 『신집』 편찬 - 영양왕 때인 600년의 일이다.

왜 이 순서: (가)는 545년 신라 『국사』 편찬 뒤이면서 600년 고구려 『신집』 편찬 앞의 사건이어야 하므로 552년의 백제 불교 전래 사건이 들어간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고구려 장수왕의 백제 한성 함락은 475년이다. 이는 545년보다 앞선 사건이므로 (가)에 들어갈 수 없다. 틀린 표현은 '(가) 시기'이다. 올바르게는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 한성을 함락한 일은 (가)보다 앞선 시기이다.'이다.

② X
금관가야가 가야 연맹의 주도권을 상실한 것은 5세기 전반의 일로 본다. 이 역시 545년보다 앞선 시기이므로 (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가) 시기'이다. 올바르게는 '금관가야가 가야 연맹의 주도권을 상실한 일은 (가)보다 앞선 시기이다.'이다.

③ X
신라의 독자적 연호인 건원은 법흥왕이 536년에 사용한 것이다. 536년은 신라 『국사』 편찬보다도 앞서므로 (가)에 놓을 수 없다. 틀린 표현은 '(가) 시기'이다. 올바르게는 '신라에서 건원이라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한 것은 (가)보다 앞선 536년이다.'이다.

④ O
백제가 노리사치계를 일본에 보내 불상과 불경을 전한 것은 552년이다. 552년은 545년과 600년 사이이므로 (가)에 들어간다.

오답 포인트

연표 문제는 사건 자체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제시된 기준 사건 사이에 들어가는지를 따져야 한다. ③의 건원은 신라 사건이라 늦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536년이라 545년보다 앞선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표형 문항은 자료에 제시된 앞 사건과 뒤 사건의 연도를 먼저 고정한 뒤, 각 선지 사건이 그 사이에 들어가는지만 판단하면 된다. 이 문항에서는 545년과 600년 사이인지가 정답 판별 기준이다.

암기 포인트

국사 545 -> 왜에 불교 전래 552 -> 신집 600의 흐름으로 묶어 기억한다.

NoteBase

문 10. (가) ~ (라)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참회법과 미타정토신앙을 실천행으로 강조하는 결사 운동을 전개하였다.
(나) 송광산 길상사를 근거지로 새로운 선풍(禪風) 진작에 힘을 기울여 개혁적인 승려들과 지방민의 호응을 얻었다.
(다) 북악파 중심으로 남악파를 통합하여 화엄교단을 정리하고 당시 불교계를 주도하였다.
(라) 고려와 송, 거란 등의 불교 저술을 망라한 '신편제종교장총록'을 작성하고 속장경을 간행하였다.

① (가) - 중국 화엄종의 방계(傍系)인 이통현의 화엄사상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② (나) - 선을 체(體)로 삼고 교를 용(用)으로 삼아 선과 교의 합일점을 구하였다.
③ (다) - 화엄사상의 입장에서 법상종 세력을 흡수하여 성상융회 사상을 표방하였다.
④ (라) - (다)의 화엄학이 실천의 문제를 떠나 지나치게 관념화되어 있음을 비판하였다.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고려 불교사의 대표 승려인 요세, 지눌, 균여, 의천의 핵심 활동과 사상을 정확히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가) 요세: 백련결사, 참회법, 미타정토신앙을 내세워 실천 수행과 신앙 결사를 중시하였다.
(나) 지눌: 정혜결사와 수선사 결사를 이끌며 선교일치와 수행 혁신을 추구하였다.
(다) 균여: 북악파와 남악파를 아우르며 화엄 교단을 정비하고 성상융회를 주장하였다.
(라) 의천: 교관겸수, 속장경 간행, 『신편제종교장총록』 편찬으로 교종 중심 개혁을 추진하였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가)는 요세이다. 요세는 백련결사를 이끌며 참회법과 미타정토신앙을 강조한 승려이다. 이통현의 화엄사상 영향과 직접 연결되는 인물은 지눌 쪽이므로, '(가)가 이통현의 화엄사상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연결은 틀리다. 틀린 표현은 '(가)'이고, 올바르게는 '지눌이 이통현의 화엄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또는 '(가) 요세는 백련결사와 정토 신앙으로 이해한다'이다.
② O: (나)는 지눌이다. 지눌은 송광산 길상사를 근거지로 새로운 선풍을 일으켰고, 선을 중심에 두면서도 교를 아울러 선과 교의 합일점을 찾았다. 제시문의 내용과 선지의 설명이 서로 맞는다.
③ O: (다)는 균여이다. 균여는 화엄사상을 바탕으로 법상종 계열을 포섭하여 성상융회 사상을 표방하였다. 북악파 중심으로 남악파를 통합해 화엄 교단을 정비했다는 제시문과도 일치한다.
④ O: (라)는 의천이다. 의천은 교종을 정비하고 천태종을 세우는 과정에서 기존 화엄학이 실천과 멀어지고 관념화된 점을 비판하였다. 『신편제종교장총록』 편찬과 속장경 간행이라는 제시문과도 맞는다.

오답 포인트

요세와 지눌은 모두 고려의 불교 개혁 승려라서 자주 함께 출제된다. 그러나 요세는 백련결사·참회·정토 신앙으로, 지눌은 정혜결사·수선사·선교일치로 구분된다. ①은 요세의 단서를 주고 지눌의 사상 영향을 붙여 혼동을 유도한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려 승려 문제는 결사 운동, 교단 통합, 교장 간행 같은 대표 업적을 먼저 연결하면 빠르게 정리된다. 참회와 정토는 요세, 송광사와 선교일치는 지눌, 화엄 통합은 균여, 교장과 천태종은 의천으로 판단된다.

암기 포인트

요세=백련결사, 지눌=정혜결사, 균여=성상융회, 의천=교관겸수이다.

NoteBase

문 11. 다음과 같은 시기에 재위하였던 국왕대의 사실로 옳은 것은?

성균관을 다시 짓고 이색을 판개성부사 겸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았다. … (중략) … 이색이 다시 학칙을 정하고 매일 명륜당에 앉아서 경전을 나누어 수업하였는데, 강의를 마치면 함께 논쟁하느라 지루함을 잊었다. 이에 학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고 서로 함께 눈으로 보고 느끼게 되니, 정주성리학이 비로소 흥기하게 되었다.
— 『고려사』 —

① 정도행성을 설치하였다.
② 정치도감을 설치하였다.
③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④ 각염제를 처음으로 시행하였다.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성균관 중건, 이색 등용, 정주 성리학의 흥기라는 단서로 공민왕 대를 찾고 그 시기의 개혁 정책을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제시문은 공민왕 대의 상황이다. 공민왕은 반원 자주 정책과 함께 성균관을 정비하고 이색 등을 등용하여 성리학 수용을 뒷받침하였다. 또 권문세족이 빼앗은 토지와 부당하게 노비가 된 백성을 바로잡기 위해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X: 정동행성은 원이 일본 정벌을 위해 고려에 둔 기구이다. 틀린 표현은 "설치하였다"이다. 올바르게는 충렬왕 때 정동행성이 설치되어 원의 내정 간섭 통로로 작용하였다.
② X: 정치도감은 충목왕 3년인 1347년에 설치된 폐정 개혁 기구이다. 틀린 표현은 공민왕 대 정책처럼 연결한 점이다. 올바르게는 정치도감은 충목왕 때의 개혁 기구이다.
③ O: 전민변정도감은 공민왕이 설치한 대표적 개혁 기구이다. 권문세족의 불법적인 토지 겸병과 노비화 문제를 시정하려는 조치라는 점에서 제시문의 시기와 맞는다.
④ X: 각염제는 소금을 국가가 전매하는 제도로, 고려에서 처음 시행된 시기는 충선왕 때이다. 틀린 표현은 "처음으로"와 공민왕 대 연결이다. 올바르게는 충선왕이 재정 확충을 위해 각염제를 시행하였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고려 후기 개혁 기구와 제도를 왕별로 섞어 내는 함정이다. 정치도감은 충목왕, 각염제는 충선왕, 정동행성은 충렬왕 대 원 간섭기와 연결된다. 공민왕은 반원 개혁과 전민변정도감으로 잡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려 후기 왕을 묻는 문제는 제시문의 인물과 정책을 먼저 묶어 판단한다. 이색, 성균관 정비, 성리학 흥기라는 단서가 보이면 공민왕을 떠올리고, 이어서 전민변정도감 같은 공민왕 개혁책을 연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공민왕 = 반원 개혁 + 성균관 정비 + 전민변정도감이다.

NoteBase

문 12. 다음과 같이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오호라. 작년 10월에 저들이 한 행위는 만고에 일찍이 없던 일로서, 한 조각의 종이에 강제로 조인하게 하여 5백 년 전해오던 종묘사직이 마침내 하룻밤 사이에 망했으니 … (중략) … 우리 의병군사의 올바름을 믿고, 적의 강대함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에 격문을 돌리니 다 함께 일어나라.

<보기>
ㄱ. 의병을 이끌고 홍주성을 점령하였다.
ㄴ. 대마도(쓰시마)로 압송된 후 순국하였다.
ㄷ. 왜양일체론을 주장하며 개항에 반대하였다.
ㄹ. 13도 창의군을 이끌고 서울진공작전을 지휘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을사늑약에 반대해 의병을 일으킨 최익현의 활동과 다른 의병장의 활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제시문은 을사늑약을 비판하며 의병 봉기를 촉구한 최익현의 격문에 해당한다.
최익현은 위정척사 사상을 바탕으로 왜양일체론을 내세워 개항과 통상 수교에 반대하였다.
1906년 태인에서 임병찬 등과 의병을 일으켰다가 순창에서 체포되었고, 대마도로 압송된 뒤 단식하다 순국하였다.
홍주성 점령은 민종식 의병 부대, 13도 창의군과 서울 진공 작전은 이인영·허위 등의 활동과 연결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이 틀리고 ㄴ은 맞는 조합이므로 오답이다. '홍주성을 점령하였다'는 민종식의 활동이다. 최익현에 대해 올바르게는 '대마도로 압송된 후 순국하였다'라고 보아야 하므로 맞는 조합은 'ㄴ, ㄷ'이다.
② X: ㄱ과 ㄹ이 모두 최익현의 활동이 아니므로 오답이다. ㄱ의 홍주성 점령은 민종식, ㄹ의 13도 창의군과 서울 진공 작전은 이인영을 총대장으로 한 의병 연합 부대의 활동이다. 틀린 연결을 고치면 정답 조합은 'ㄴ, ㄷ'이다.
③ O: ㄴ과 ㄷ이 모두 최익현에 대한 설명이므로 정답이다. 최익현은 대마도로 압송된 뒤 순국하였고, 위정척사 사상에 따라 왜양일체론을 주장하며 개항에 반대하였다.
④ X: ㄷ은 맞지만 ㄹ이 틀려서 오답이다. 13도 창의군을 이끌고 서울 진공 작전을 지휘한 인물로 연결되는 것은 이인영과 허위이다. ㄹ을 빼고 ㄴ을 넣은 'ㄴ, ㄷ'이 최익현에 대한 올바른 조합이다.

오답 포인트

의병 항쟁 관련 인물을 하나로 묶어 기억하면 ㄱ과 ㄹ에 흔들리기 쉽다. 최익현은 위정척사 계열 원로 유생 의병장으로 대마도 순국이 핵심이고, 홍주성은 민종식, 13도 창의군 서울 진공 작전은 이인영·허위로 분리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 문제는 격문의 성격과 최후를 먼저 잡으면 빠르게 풀린다. 을사늑약 반대 격문, 위정척사, 왜양일체론, 대마도 순국이 보이면 최익현으로 판단하고, 홍주성·13도 창의군처럼 다른 의병장 고유 사건은 바로 제외한다.

암기 포인트

최익현 = 위정척사 + 왜양일체론 + 을사의병 + 대마도 순국이다.

NoteBase

문 13. 다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백제역사유적지구 문화유산 중 부여군에 속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림사지
ㄴ. 공산성
ㄷ. 부소산성과 관북리유적
ㄹ. 송산리 고분군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백제역사유적지구에 포함된 유적을 공주권과 부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백제역사유적지구는 공주, 부여, 익산의 유적군으로 나뉜다.
부여군 유적은 정림사지, 부소산성과 관북리유적 등이 해당한다.
공주 유적은 공산성, 송산리 고분군이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1번: O. ㄱ 정림사지는 부여에 있고, ㄷ 부소산성과 관북리유적도 부여에 있다. 제시된 두 항목이 모두 부여군 소속이므로 옳다.
2번: X. 틀린 표현은 'ㄱ, ㄹ'의 조합이다. ㄱ 정림사지는 부여가 맞지만, ㄹ 송산리 고분군은 공주에 있다. 올바르게는 'ㄱ, ㄷ'이어야 한다.
3번: X. 틀린 표현은 'ㄴ, ㄷ'의 조합이다. ㄴ 공산성은 공주에 있고, ㄷ 부소산성과 관북리유적은 부여에 있다. 두 항목의 소속 지역이 다르므로 부여군에 속한 것만 모은 조합이 아니다.
4번: X. 틀린 표현은 'ㄴ, ㄹ'의 조합이다.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은 모두 공주 유적이다. 올바르게는 부여 유적인 'ㄱ, ㄷ'을 골라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공산성과 송산리 고분군은 모두 공주의 대표 유적이고, 정림사지와 부소산성은 부여의 대표 유적이다. 공주권과 부여권 유적을 한 세트로 묶어 외우지 않으면 지역이 뒤섞여 틀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백제역사유적지구 문제는 먼저 유적 이름을 공주권, 부여권, 익산권으로 나눈 뒤 조합 전체가 같은 지역에 속하는지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부여는 정림사지·부소산성, 공주는 공산성·송산리 고분군이다.

NoteBase

문 14. 밑줄 친 '그'의 행적으로 옳은 것은?

왕이 수도(금성)에 성곽을 쌓으려고 문의하니 그가 말하기를,
“비록 초야에 살더라도 정도(正道)만 행하면 복업(福業)이 오래 갈 것이요, 만일 그렇지 못하면 여러 사람을 수고롭게 하여 성을 쌓을지라도 아무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은 이에 성 쌓는 일을 그만두었다.
— 『삼국사기』 —

①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화쟁사상을 주장하였다.
② 당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부석사를 창건하였다.
③ 당에 들어가 유식론을 독자적으로 발전시켰다.
④ 가지산파를 개창하면서 선종을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의상과 다른 승려들의 대표 업적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인물 매칭 문제이다.

핵심 정리

의상: 화엄종 정립, 부석사 창건, 왕에게 올바른 정치를 강조한 승려이다.
원효: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화쟁사상을 전개한 승려이다.
원측: 당에서 활동하며 유식학 연구를 심화한 승려이다.
도의: 귀국 후 가지산문을 열어 선종 보급의 계기를 만든 승려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일심사상과 화쟁사상은 원효의 업적이다. 틀린 표현은 의상의 행적으로 연결한 점이다. 올바르게는 원효가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여러 교학의 대립을 조화시키는 화쟁사상을 주장하였다.
② O: 의상은 당에서 유학한 뒤 귀국하여 화엄 사상을 전파하였고 부석사를 창건하였다. 제시문 속 인물은 왕에게 성곽 축조보다 정도를 행할 것을 말한 의상이므로 옳다.
③ X: 당에 들어가 유식론을 깊이 연구하고 독자적으로 발전시킨 인물은 원측이다. 틀린 표현은 이를 의상의 행적으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원측이 당에서 활동하며 유식학 연구를 전개하였다.
④ X: 가지산문을 열어 선종을 보급한 인물은 도의이다. 틀린 표현은 의상의 행적으로 연결한 점이다. 올바르게는 도의가 귀국 후 가지산문을 개창하여 선종 확산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불교사 인물 문제는 원효, 의상, 원측, 도의의 업적이 함께 제시되어 서로 뒤섞이기 쉽다. 특히 원효의 화쟁, 의상의 화엄과 부석사, 도의의 선종 보급을 인물별 대표 키워드로 분리하지 않으면 ①과 ④에 흔들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사 문제는 먼저 제시문 단서로 인물을 특정한 뒤 각 선지의 대표 키워드를 대조하여 판단한다. 의상으로 보이면 화엄종 정립, 부석사, 왕에게 정도를 강조한 일화를 연결하고 화쟁사상이나 선종 보급이 나오면 다른 인물로 본다.

암기 포인트

의상=화엄종·부석사, 원효=일심·화쟁, 원측=유식학, 도의=선종·가지산문이다.

NoteBase

문 15. 다음 풍속이 행해진 나라의 중심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이곳 사람들은 시체를 가매장했다가 썩은 뒤에 다시 뼈만 추려서 큰 목곽에 넣는다. 가족들의 시신도 모두 여기에 합장했으며, 죽은 사람의 모습을 닮은 인형을 만들어 목곽 옆에 두었다.
- 『삼국지』 -

① 창녕비
② 황초령비
③ 사택지적비
④ 충주 고구려비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사료에 나타난 장례 풍습으로 옥저를 식별하고, 그 중심지와 가까운 문화유산의 위치를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옥저는 함경도 동해안 일대에 있었던 나라로, 가매장 뒤 뼈를 추려 큰 목곽에 함께 넣는 골장 풍습이 특징이다. 황초령비는 함경남도 함흥 부근에 세워진 진흥왕 순수비이고, 다른 선택지는 각각 창녕·부여·충주에 있어 옥저 중심지와 거리가 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창녕비는 경남 창녕에 있는 신라 진흥왕 순수비이다. 옥저의 중심지로 보는 함흥 일대와 가깝지 않다.
틀린 부분은 옥저와의 지리적 연결이다. 올바르게는 창녕비는 영남 지역과 관련된 비석이다.

② O
황초령비는 함경남도 함흥 부근에 있는 진흥왕 순수비이다. 사료의 풍습은 옥저를 가리키며, 옥저 중심지와 가장 가까운 곳의 문화유산이므로 맞다.

③ X
사택지적비는 백제의 사택지적이 절을 세우며 남긴 비석으로 충남 부여에 있다. 옥저 중심지와 가까운 문화유산이 아니다.
틀린 부분은 위치 판단이다. 올바르게는 사택지적비는 백제 문화권인 부여 지역의 유물이다.

④ X
충주 고구려비는 충북 충주에 있는 고구려 비석이다. 충주는 남한강 유역으로, 함경도 동해안의 옥저 중심지와 거리가 멀다.
틀린 부분은 옥저 인접 지역으로 본 점이다. 올바르게는 충주 고구려비는 중원 지역과 관련된 고구려 유물이다.

오답 포인트

가매장과 골장 풍습을 보고 옥저까지는 떠올리면서도, 위치 연결을 놓치면 고구려비나 다른 순수비를 고르기 쉽다. 옥저는 함경도 동해안이라는 공간 정보까지 함께 떠올려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료에서 가매장, 뼈를 추려 큰 목곽에 넣는 풍습이 보이면 옥저를 먼저 확정한다. 그다음 옥저의 위치를 함경도 동해안으로 연결하고, 선택지 문화유산의 위치를 하나씩 대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옥저는 가매장·골장 풍습, 위치는 함경도 동해안, 연결 유적은 함흥 부근의 황초령비이다.

NoteBase

문 16.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독립신문 발간에 관여했던 그는 독립신문사 안에 '국문동식회(國文同式會)'를 조직했으며, 1897년 4월에 '국문론'이라는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의 문장들이 한문에 토를 다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면서 실제로 말하는 대로 글을 쓰는 '언문일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① 우리말큰사전의 편찬을 주도하였다.
② 문법 서적인 『국어문법』을 저술하였다.
③ 조선어연구회를 주도적으로 조직하였다.
④ 한글맞춤법 통일안을 만들어 발표하였다.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독립신문, 국문동식회, 국문론, 언문일치라는 단서로 주시경을 식별하고 그의 업적을 고르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주시경은 근대 국어 연구의 기초를 세운 인물로, 국어 문법 체계를 세우고 언문일치를 주장하였다.
조선어연구회는 주시경 사후에 제자들이 조직한 단체이다.
우리말큰사전 편찬과 한글 맞춤법 통일안 발표는 조선어학회 시기의 사업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우리말큰사전의 편찬을 주도'가 틀린 표현이다.
우리말큰사전 편찬은 뒤의 조선어학회가 추진한 사업이므로 주시경의 직접 업적으로 보기 어렵다.

② O
주시경은 국어 문법 연구를 체계화한 인물로 문법서인 『국어문법』을 저술하였다.
제시문의 '국문론' 발표와 '언문일치' 주장도 모두 주시경의 활동과 맞는다.

③ X
'조선어연구회를 주도적으로 조직'이 틀린 표현이다.
조선어연구회는 1921년에 주시경의 제자들이 조직한 단체이므로 주시경 본인의 업적으로 연결할 수 없다.

④ X
'한글맞춤법 통일안을 만들어 발표'가 틀린 표현이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1933년에 조선어학회가 마련하여 발표한 것이므로 주시경의 직접 업적이 아니다.

오답 포인트

주시경은 국어 연구의 선구자이므로 후대 한글 운동 단체의 성과까지 함께 묶어 떠올리기 쉽다. ①, ③, ④는 모두 주시경의 영향권에 있는 흐름이지만 직접 업적은 아니라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근대 국어사 인물 문제는 인물 본인의 저술과 주장, 후대 단체의 사업을 분리해서 판단한다. 주시경은 국문론, 언문일치, 『국어문법』으로 잡고 조선어연구회와 조선어학회의 사업은 후대 활동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주시경 = 국문론·언문일치·『국어문법』이다.

NoteBase

문 17. 밑줄 친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30년대 일제의 중국 침략이 본격화되자, 중국 본토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 단체들은 좌우의 대립을 지양하고 민족 연합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상하이에서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을 결성하고 민족 유일당 건설을 제창하였다. 이에 여러 단체의 인사들이 난징에서 회의를 열고 이 단체를 창건하였다. 이는 단순한 여러 단체의 동맹이 아니라 단일 정당을 형성한 것이다.

① 창설 당시 김구는 참여하지 않았다.

② 동북항일연군을 산하의 군사조직으로 두었다.

③ 지청천, 조소앙의 독주로 김원봉이 탈퇴하였다.

④ 한국독립당,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 3당의 통합으로 만들어졌다.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1930년대 중국 관내 독립운동 단체의 통합 과정에서 민족혁명당의 성립 주체, 내부 분열, 관련 군사조직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민족혁명당: 1935년 난징에서 조선의열단·한국독립당·신한독립당·조선혁명당·대한인독립당이 연합해 만든 단일 정당이다. 키워드는 통일전선, 단일 정당, 김원봉 계열 중심이다.
한국국민당: 김구 등이 민족혁명당 결성에 참여하지 않고 1935년에 따로 조직한 정당이다. 키워드는 비참여 세력, 김구, 민족혁명당에 대한 대항이다.
1940년 한국독립당: 한국국민당·한국독립당·조선혁명당의 3당 통합으로 다시 조직된 정당이다. 키워드는 충칭, 3당 통합, 후대 재편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김구는 민족혁명당 창설에 참여하지 않았다. 김구·이동녕 등은 민족혁명당에 들어가지 않고 뒤에 한국국민당을 창당하였다.

② X
틀린 표현은 '동북항일연군'이다.
동북항일연군은 만주 지역의 중국 공산당 계열 항일 연합부대이다. 민족혁명당 계열이 연결되는 무장조직은 훗날 조선민족전선연맹 산하에서 결성된 조선의용대이다.

③ X
틀린 표현은 '지청천, 조소앙의 독주로 김원봉이 탈퇴하였다'이다.
실제로는 김원봉파 조선의열단의 전횡과 독단이 문제 되어 조소앙 등 일부가 탈당하였고, 이후 지청천 계열도 갈등 끝에 이탈하였다. 김원봉이 탈퇴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김원봉이 당권을 장악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④ X
틀린 표현은 '한국독립당,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 3당의 통합으로 만들어졌다'이다.
이 3당 통합은 1940년 충칭에서 한국독립당이 재편될 때의 내용이다. 민족혁명당은 1935년 조선의열단·한국독립당·신한독립당·조선혁명당·대한인독립당의 연합으로 조직되었다.

오답 포인트

④의 3당 통합과 ①의 김구 비참여를 서로 다른 시기의 사건으로 구분하지 못하면 헷갈리기 쉽다. 또 ②처럼 만주의 동북항일연군과 중국 관내 김원봉 계열의 조선의용대를 같은 계열 무장조직으로 섞어 내는 것이 대표적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중국 관내 독립운동 단체 문제는 먼저 시기를 본다. 1935년 난징의 단일 정당이면 민족혁명당, 1935년 김구의 별도 정당이면 한국국민당, 1940년 3당 통합이면 한국독립당으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민족혁명당은 1935 난징 단일 정당, 김구는 비참여, 3당 통합은 1940 한국독립당이다.

NoteBase

문 18. ㉠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월 을사에 태조가 예산진에 행차하여 이르기를, “너희 공경장상은 국록을 먹는 사람들이므로 내가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헤아려서, 너희들 ㉠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다. 만약 무지한 가신들을 ㉠에 보낸다면, 오직 거두어들이는 데만 힘써 마음대로 약탈할 것이니 너희 또한 어찌 알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ㅡ『고려사』ㅡ

① 신라의 토지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② 직역에 대한 대가로 수조권만을 지급한 것이다.

③ 대상 토지에 거주하는 가호의 수를 단위로 지급되었다.

④ 지방호족들의 경제기반으로 고려 무신정권기까지 존속했다.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사료의 토지가 고려 초 공경장상에게 지급된 녹읍인지, 그리고 녹읍과 식읍·전시과의 차이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녹읍은 고려 초 공경장상에게 특별히 지급한 지역 기반의 경제 처우로, 신라의 녹읍 제도가 이어진 것이다.
식읍은 공신·왕족에게 호를 단위로 지급한 봉읍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전시과는 관직 복무의 대가로 수조권을 지급한 제도로, 백성 지배권을 전제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사료의 ㉠은 녹읍이다. 녹읍은 신라 토지 제도의 영향을 받아 고려 초에도 운영되었으므로 옳다.
② X: 틀린 부분은 "직역에 대한 대가로 수조권만을"이다. 녹읍은 일반 관직 수행의 보수 체계인 전시과와 다르고, 단순한 수조권만 지급한 제도로 보기 어렵다. 올바르게는 "전시과가 직역의 대가로 수조권을 지급한 제도"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가호의 수를 단위로 지급"이다. 호를 단위로 지급한 것은 식읍의 특징이다. 올바르게는 "녹읍은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주어졌고, 식읍이 호를 단위로 지급되었다"이다.
④ X: 틀린 부분은 "지방호족들의 경제기반으로 고려 무신정권기까지 존속"이다. 녹읍은 고려 초 호족 포섭과 공신 우대의 성격이 강했으며, 중앙 집권 체제가 정비되면서 전시과 체제로 넘어갔다. 올바르게는 "무신정권기까지 존속한 지방호족의 경제기반으로 보기 어렵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사료에 "녹읍의 백성"이 직접 나오므로 식읍과 전시과를 섞으면 틀리기 쉽다. 특히 ③은 "백성"과 "가호"라는 표현 때문에 식읍의 호수 단위 지급을 녹읍에 잘못 연결한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려 초 사료에서 특정 관리가 어떤 지역의 백성을 거느리거나 가신을 보내 수취하는 모습이 나오면 먼저 녹읍·식읍처럼 지역과 백성을 매개로 한 제도인지 본다. 이후 직역 대가의 수조권만 주는 제도이면 전시과, 호를 단위로 봉해 주면 식읍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암기 포인트

녹읍은 신라 계통의 고려 초 제도, 식읍은 호수 단위 봉읍, 전시과는 수조권 지급 제도이다.

NoteBase

문 19. 밑줄 친 '시집'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위항인들은 인왕산, 삼청동, 청계천, 광교 등의 지역에 많은 시사를 결성하여 문학 활동을 벌이면서 자신들의 위상을 높여 갔다. 그리고 문학을 하는 능력에는 신분의 귀천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시를 집성한 시집을 편찬하였다.

① 어우야담
② 연조귀감
③ 호산외기
④ 소대풍요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조선 후기 위항인의 문학 활동과 그들의 시를 모은 위항 시집을 작품명과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위항인은 중인층을 중심으로 한 문학 담당층으로, 신분보다 시재를 중시하며 시사를 조직해 공동 시집을 편찬하였다.
『소대풍요』는 고시언과 채팽윤이 위항 시인의 작품을 모아 간행한 대표적 위항 시집이다.
『어우야담』은 유몽인의 야담집이다.
『연조귀감』과 『호산외기』는 중인·향리 계층의 현실과 역사를 서술한 역사서 계열 저술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위항 시집에 해당한다는 연결이 틀렸다. 『어우야담』은 유몽인이 엮은 야담집으로, 조선 후기의 일화와 사회상을 담은 책이다.
② X: 위항 시집에 해당한다는 연결이 틀렸다. 『연조귀감』은 향리층의 역사와 실태를 정리한 역사서로, 시를 모은 시집이 아니다.
③ X: 위항 시집에 해당한다는 연결이 틀렸다. 『호산외기』는 중인 신분층의 역사 인식을 보여 주는 역사서 계열 저술로, 위항 시인의 작품을 모은 시집이 아니다.
④ O: 『소대풍요』는 위항인들의 시를 모아 편찬한 대표적 위항 시집이다. 제시문처럼 위항인들이 시사를 결성하고 자신들의 시를 집성한 흐름과 정확히 맞는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중인 관련 저술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연조귀감』이나 『호산외기』를 고르기 쉽다. 그러나 제시문은 문학 활동과 시집 편찬을 묻고 있으므로 역사서가 아니라 위항 시집을 골라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선 후기 중인층 자료가 보이면 먼저 분야를 나눈다. 야담집인지, 역사서인지, 위항 시집인지를 구분한 뒤 문학 활동과 시집 편찬이 나오면 『소대풍요』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위항 문학의 대표 시집은 『소대풍요』이고, 『어우야담』은 야담집, 『연조귀감』·『호산외기』는 역사서 계열 저술이다.

NoteBase

문 20. 다음 글의 저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의 역사는 민족의 소장성쇠(消長盛衰)의 상태를 서술할지라. 민족을 빼면 역사가 없으며 역사를 빼어 버리면 민족의 그 국가에 대한 관념이 크지 않을지니, 오호라 역사가의 책임이 그 역시 무거울진저 …(중략)…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는 무정신의 역사이다. 무정신의 역사는 무정신의 민족을 낳으며, 무정신의 국가를 만들 것이니 어찌 두렵지 아니하리오.

① 이순신, 을지문덕 등 위인의 전기를 써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② 한국의 독립운동 과정을 서술한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저술하였다.

③ '5천년간 조선의 얼'이라는 글을 신문에 연재하여 민족정신을 고취하였다.

④ '조선심'을 강조하며 정약용 연구를 중심으로 한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역사는 민족의 소장성쇠를 서술하는 것"이라는 신채호의 민족주의 사학 인식을 단서로, 신채호의 활동을 박은식·정인보의 활동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신채호: 민족주의 사학을 대표하는 인물로, 역사를 민족 중심으로 파악하고 위인전을 써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박은식: 국혼을 강조한 역사학자로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저술하였다.
정인보: 얼과 조선심을 강조한 학자로, 정약용 연구와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였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신채호는 『을지문덕』, 『이순신전』 등 위인전을 저술하여 민족의 자주정신과 항일 의식을 고취하였다. 제시문의 민족 중심 역사관과도 일치한다.

② X
틀린 부분은 『한국독립운동지혈사』의 저자 연결이다. 이 책은 박은식이 저술하였다. 신채호와 연결되는 저술로는 『독사신론』, 『조선상고사』, 여러 위인전이 있다.

③ X
틀린 부분은 '5천년간 조선의 얼'의 저자 연결이다. 이 글은 정인보가 신문에 연재한 것으로, 얼을 강조한 민족정신 고취와 관련된다. 신채호는 얼보다는 민족주의 사학과 아와 비아의 투쟁 관점으로 연결된다.

④ X
틀린 부분은 '조선심'을 강조하며 정약용 연구를 중심으로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였다는 설명이다. 이는 정인보에 대한 설명이다. 신채호는 조선학 운동의 중심 인물이 아니라 민족주의 사학을 체계화한 인물로 보는 것이 맞다.

오답 포인트

박은식과 정인보도 모두 민족의식을 강조한 인물이어서 헷갈리기 쉽다. 그러나 박은식은 국혼과 『한국독립운동지혈사』, 정인보는 얼·조선심·조선학 운동, 신채호는 민족주의 사학과 위인전으로 구분하면 정리가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인물 매칭 문제에서는 제시문의 핵심 문장이나 대표 키워드를 먼저 잡고 판단한다. 신채호는 민족주의 사학, 박은식은 국혼과 독립운동사 서술, 정인보는 얼과 조선심으로 연결하면 빠르게 구별된다.

암기 포인트

신채호=민족주의 사학·위인전, 박은식=국혼·『한국독립운동지혈사』, 정인보=얼·조선심·조선학 운동이다.

NoteBase